

2010년 3월 8일 월 게시 조혜은 전도사 사랑의 기준자 (20091206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주향기로운 교회 조혜은입니다. 2009년 12월 6일 하루종일 예수님께서 선생님에 대해 말씀해 주시다가 ‘그처럼 순수하고 맑은 자가 없다’ 하시며 철야기도 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사랑의 조건자 선생에 대해 말하겠다. 진정 선생은 나의 신부, 나의 애인이다. 나 추울 때 옷 벗어주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잘 곳 없을 때 잠자리를 마련해 준다. 나는 인생이 힘든 자들과 함께 있기에 너의 선생 그 자리를 품어주고, 사랑해 주고, 돌보아주며, 내 사랑 전했다.

너는 지금 내 말이 들리니 1분 1초 나와 대화 하고 묻고 얘기하지만 너희 선생 내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나에게 묻고 내 심정 맞추느라 울고 불고 마음 줄이며 내 눈치 내 아버지 눈치만 보고 살았다. 그의 인생 생각 하면 안쓰럽다. 선생은 자신의 청춘을 팔아 자신과 너희를 나에게 선물했다. 그 얼마나 완전한 선물이었는지 너희는 모른다. 섭리사에 ‘자기를 나에게 선물로 준다’ 하는 자 많지만 선생같이 완전히 자신을 나에게 주는 자 없다. 너희 선생이 유일하다.

그런데 왜 섭리사 제자들은 선생을 의심하느냐. 그가 의심할 만한 사람인 줄 아느냐. 그 곳엔 너무나도 너희는 몰라주는 구나. 너희 선생 지금 무얼 하고 있는 줄을 아느냐. 눈물로 너희 기도 하고 있다. 무엇이 그리 의심되기에 그리도 의심하느냐. 정녕 순수하고 착한자, 그리 마음 여리고 내 앞에 깨끗한 자, 그 같은 자 없는데 왜 너희는 그리 돌을 던지느냐.

섭리사는 회개하여야 한다. 선생이 의심되느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되느냐. 나는 정녕 죄 있는 자를 쓰지 않는다. 너희 선생 너희에게 말 못할 고생, 고생이라는 고생 다 해가면서도 너희 못 먹을까 못 입을까 걱정하고 자신 걱정할까봐 ‘잘 지낸다’는 영상 찍어보내면 너희는 정말 ‘잘 지낸다’ 생각하여 선생 기도 해 주는 자 거의 없었다. 입술로만 기도했지 진정 그의 처지되어 기도한자 없었다. 해외에서 목숨 걸어놓고 내 말씀 전하였고 차가운 그 곳 가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외치는 자였다. 진정 그러한 자 내 사랑이다.

사랑, 말로 하는 것 사랑 아니다. 너희 선생처럼 행동으로 하는 것이 진정 사랑이지. 그 사랑 위대하다. 영계에서도 인정하고 내 아버지도 깜짝 놀라 인정하는 그러한 사랑이

다. 긴가민가 하여 따라오느냐. 섭리역사는 너희 선생이 나를 사랑하므로 신부의 조건을 세워 열어주게 된 사랑의 역사다. 너희 선생이 조건 쌓지 않았다면 너희는 여전히 아들 시대에 살고 있다.

너희는 선생의 귀중함을 깨달아라. 추운 곳에 가셔도 자신이 추우면서 나 춥지 않냐고 먼저 묻는 자다. 내가 하라고 감동 주는 것은 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정녕 이루는 자다. 사람들 오해하고 수군거리도 오직 나만 보고 가는 자다. 그렇게 나 생각하는 자 없다. 정녕 없다. 정말 나 육신 있는 것처럼 대해 준다. 그의 평생을 함께 했지만 것처럼 마음 변하지 않고 가는 자도 없다. 그는 변질되지 않기에 완전한 자다. 내 앞에 진실로 완전한 자다. 나의 뜻으로 움직이고 나와 함께 움직이는 자다.

섭리사 혼란스러워 하는 자들 너희 선생 아직도 너희를 내 앞에 중보한다. 살려달라 애원한다. 그리하니 내가 다시 한 번 힘들어 하는 자에게 갈 수 밖에 없다. 너희 선생 자기 자신을 버린 자다. 그는 부모 형제도 없다. 2000년 전 나의 삶을 지금 사는 자다. 정녕 그에 대해 속 시원히 보여주고 싶지만 또 오해할까 걱정이다. 무엇을 말하든 이상한 눈으로 보는 자에겐 이상해 보이는 것이다.

정녕 말하지만 너희 선생은 천국간다. 당연하다 생각마라. 선생이니가 하는 생각 마라. 그의 몸부림을 모르는 자 쉽게 생각하겠지만 너희 선생 매일매일을 내일은 어찌될지 모르는 삶 속에서도 나 찾고 부르며 기뻐하며 살고 살았다. 선생에 대해 깊이 깨달아라. 발전하라. 그의 기준을 배워라. 너희 선생에게 배운 제자들답게 나에게 나아오라. 어찌 같은 나무인데 열매가 다른 자가 이리도 많은지 이해할 수 없다. 무엇을 배웠느냐. 진정 무엇을 배웠길래 누구에게 배웠길래 그리 행동하느냐. 내 사랑하는 자 선생이 오늘도 기뻐하며 고된 삶도 감사해 하며 보낸다. 그 좁은 방 눕기도 민망하고 앓을 자리도 제대로 없는 방에서도 ‘나 기쁘게 하겠노라’ 나 찾고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다. 섭리의 많은 일 나와 의논하며 해결한다. 진정 대단한 자다. 너희는 ‘하루 살아 보아라’ 하면 한 시간도 못 있고 시험 들어 한 동안 나 안 부를 것이다.

너희 선생 무조건 감사 무조건 생명 사랑 무조건 주님 최우선이다. 여기서도 전도한다. 노력한다. 어디서든 아멘 아멘 하며 몸부림 친다. 그의 영 어찌나 대단한지 영계에서 보면 놀라 자빠질 것이며 그의 의 너무 높아 끝이 보이지 않으니 선생보고 좀 배워라. 제발 배신 좀 하지 말아라. 배신하면 나도 치에 떨어지지만 끊임없이 믿어주는 네 선생 붙잡아서 볼 수가 없다. 고이고이 키워온 자기 제자들 순간 등 돌리고 선생과 있었던 일, 잘해준 일, 믿어준 일 다 까먹고 모르는 척 한다. 세상의 사람들도 서

로서로 그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모질게 대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듯 너희 선생도 사랑 많은 자이에 끝까지 너희 믿고 사랑한다. 섭리사 신부의 기준 너희 선생이니 그와 함께 신부의 기준자 되어 나에게 나와오라. 더 깊고 깊은 이야기 너희 선생 통해 들어보아라.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진정 섭리사 선생을 따라 나의 앞에 나아오기를 바란다.

섭리사의 신랑 예수.